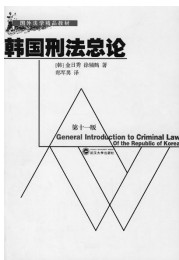


◆ 법대 소식 ◆

● 교수 동정

김일수 교수



법과대학 김일수 교수와 한양대 서보학 교수 공저인 형법총론(11판)이 최근 중국 무한대학 출판사에서 번역본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무한대학 법학원에서 기획한 「국의 법학정품교재」의 일환으로 번역출간된 것이다. 길림대학 법학원의 정군남 교수가 번역하였다. 중국에서 출간된 본 번역서는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형법 기본이론과 범죄론, 그리고 죄수론과 형벌론으로 나뉜다. 중국에서는 이 책에 대해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형법에 대해 종래와 다른 체계를 보여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론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새로운 내용들이 많다는 점, 세 번째는 현지의 사례에 충실하다는 점이다.

박노형 교수

박노형 교수는 2008년 9월 19일 금요일에 모교 백주년 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열린 모교 학문 소통연구회 주최의 세미나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의 소통과 불통의 의미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연구회의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것으로 '소통의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 속에 진행됐다.

신영호 교수

신영호 교수는 2008년 9월 24일 수요일에 법제처 주최로 열린 '남북 법제 특별 세미나'에 참석해 사법적 과제에 대해 "월남인들의 재산권을 규정하는 재산법과 이산가족 재결합을 다루는 가족법 등 2가지 법률이 가장 시급한 숙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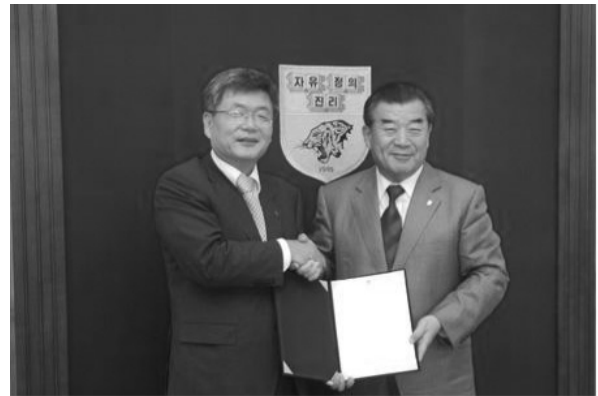
박경신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박경신 교수는 2008년 9월 26일 금요일에 사법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국가가 미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사법시험법은 개인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하태훈 교수

하태훈 교수가 2008년 9월 29일 월요일에 열린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에서 형사재판편 주제발표를 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사법부의 지난 60년간 활동을 학문적 시각에서 분석·평가하고 향후 사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 STX 5억 기금 전달



STX그룹에서 모교에 5억원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기부금은 법무대학원 학생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세계 최대 크루즈 선 건조사인 아커야즈를 인수한 STX는 해외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기수 총장에게 고대에서 글로벌 리더 육성의 역할을 해 주길 당부했다. 기부식에는 이기수 총장과 하경효 법과대학장, 마동훈 대외협력처장 그리고 STX의 이종철(법72) 대표이사 부회장과 서충일 대외협력부문장이 참석했다.

● 헌법 60주년 기념 헌민 유진오 특별전

본교 박물관(관장=조광·석사73·한국사학과 교수)은 헌법 제정 60주년 기념 헌민 유진오 특별전 '법(法)으로 세상을 그리다'를 2008년 7월 16일

수요일부터 8월 15일 금요일까지 열었다. 모교 총장이었던 현민 유진오 선생은 남조선 과도정부 산하 법전편찬위원회에 참여해 1948년 4월 헌법의 초안을 작성한 바 있다. 이런 현민 선생의 헌법안은 이후 행정 연구회의 헌법안과 결합해 제헌 국회에서 헌법심의의 주축안으로 채택되었다. 물론 일부의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현민 선생이 기초를 다진 법이 결국 건국 헌법으로 공포되어 대한민국 헌정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8년 7월 15일 화요일 박물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현승중 재단 이사장과 이기수 총장, 최광식 국립 중앙 박물관장과 김종규 한국박물관 협회장 등 여러 인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광 박물관장은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신생 대한민국 초석을 다진 유진오 선생의 유물들을 기증해 준 유족들에게 감사한다.”면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당대의 고민을 곱씹어 보고 이를 통해 우리시대의 문제점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개막사를 전했다. 이기수 총장도 기념사를 통해 “현민 선생의 개척자 정신이 고대의 좌표가 되어 왔다”면서 “헌정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최광식 국립 중앙 박물관장은 “국립 중앙 박물관에서 해야 할 전시전이 고대에서 먼저 하게 됐다”면서 “건국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축사를 통해 말했다.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특별전에서는 현민 유진오 선생의 헌법 관계자료를 중심으로 원본이 사라져 전하지 않는 건국헌법의 육필원고를 비롯해, 해방공간에서 좌우의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작성한 헌법안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주요 전시 자료로는 미군정의 헌법안(1946년 초), 좌파의 헌법안인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 시안>(1946년 1월~2월), 중간파의 헌법안인 <대한민국임시헌법>(1946년 3월~4월) 그리고 건국헌법의 기초가 되었던 유진오 선생의 헌법안 초안(1948년 4월) 등이 있다.

● 이항녕 전 법과대 교수 별세

대한민국학술원회원이자 원로 법학자 문인이었던 이항녕 전 홍익대 총장이 2008년 9월 17일 수요일에 별세했다. 호가 소고(小皐)인 고인은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경성 제2고등보통학교(현 경북고)와 경성제대(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광복 뒤에는 양산중 교장, 동아대·성균관대·고려대 교수와 경향신문 논설위원, 고려대 법과대학



장을 지냈고, 1960년대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 됐다. 같은 해 문교부 차관을 지냈으며, 홍익대 총장(1972~1980), 방송윤리위원회 위원장(1975~1977),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이사장, 서화작가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모두가 도덕심이 강하다면 법은 필요 없다”는 소신을 가진 학자였으며, 법철학 전문가로서 《법철학 개론》, 《법철학적 인간학》 등의 저서를 남겼다. 대학시절 소설가 이광수의 집에 드나든 문학청년이던 그는 이후 소설 ‘교육가족’, ‘청산공’과 수필 ‘객설록’ 등의 작품을 썼다. 국민훈장 모란장(1972)과 무궁화장(1985) 등을 받았다.

● Global Legal Clinic



본교 법과대학 산하 공식단체로 운영되는 글로벌 리걸 클리닉(Global Legal Clinic, 소장=박경신 교수·법과대 법학과, 이하 GLC)인 GLC는 “무료법률상담소”라고 할 수 있고, 국내 최초로 개설되었다. 박경신 교수가 제안하여 만들어졌으며 현재 10여 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학부생들을 상담요원으로 하여 정규과목이 아닌 봉사활동의 형태로 동원리더십센터 2층에서 2008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2008년 9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엔 법학신관 202호에서 GLC 2기 모임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기름유출 사고 법률지원’과 ‘장애인 웹 접근성’이고, ‘외국인 인권’은 현재 준비 중인 프로젝트다.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면 법무실습을 수행하는 소위 리걸 클리닉 과목인 “실습과정-법무지원(2학점 과목, 선택)”이 법

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이수하는 정규과목으로 개설될 예정이다. 박경신 교수는 미국에서의 리걸 클리닉의 활동은 지역사회와 교우사회의 기부를 통해 지원되며 사회정의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인식 되고있는데, 지역사회와 교우사회도 리걸 클리닉의 활동에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전통이 고려대학교에서도 이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제모나 상담의뢰는 ☎ 02-3290-1296 으로 하면 된다. (이메일:glckorea2008@gmail.com)

● 법과대학 09학번부터 모집 정지

논란 속에 있었던 본교 법과대학(학장=하경효·법과대학 법학과)의 향후 거취가 정해졌다. 내년 부터는 ‘법과대학 법학과’ 소속 학부생을 선발하지 않고, ‘자유전공’을 신설해 법학과 정원만큼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로스쿨 본인가 전인 지난 8월 초 진행됐던 행정학과 소속이전문제는 잠정적으로 무산된 상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 8조에 의하면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은 학부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이에 따라 법과대학 08학번이 입학한지 4년이 지난 2012년에는 법과대학 명칭을 폐지해야 한다. 군 복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2012년 이후에도 법과대학보단 규모가 작은 법학부 형태를 운영할 수 있다. 이에 하태훈(법과대 법학과) 교수는 “로스쿨을 도입해도 법과대 소속 학생들의 권리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한동안 사법시험이 존치되므로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법과대 소속 학생들은 ‘법과대학 폐지에 반대한다’는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원 법과대 학생회장은 “법과대학이 사라지고 규모가 작은 법학부 형태로 바뀐다면 법과대 학생의 권익을 지금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기 힘들 것”이라며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법과대 내 학회 및 학생활동의 존속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시간문제”라 말했다. 본교 법과대 학생회는 학생의 권익 보호와 학

문의 자유 등을 이유로 2008년 5월 12일 연세대 법과대 학생회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로스쿨 본인가 취소 소송을 신청한 상태이며, 2008년 10월 17일 금요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 본교 로스쿨 원서 접수 실시

2008년 10월 6일 월요일부터 2009학년도 본교 법학대학원 신입생 선발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10월 17일 금요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달인 2008년 11월 17일 월요일과 18일 화요일에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008년 12월 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경쟁률이 8.66 대 1을 기록했다. 일반전형 114명 선발에 총 955명이 지원해 경쟁률 8.73 대 1을, 특별전형 6명 선발에 44명이 지원해 경쟁률 7.33 대 1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최종경쟁률 전국 평균은 6.84 대 1로 집계됐다. 자세한 입시관련 사항은 본교 법과대학 홈페이지(korealaw.hosting2003.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유타 림바흐 교수의 특별강연



2008년 9월 4일 목요일에 해송법학 도서관에서 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장이었고 독일문화원의 원장을 지내기도 하였던 유타 림바흐 교수(Prof. Dr. Jutta Limbach, 1934~)를 모시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과제와 책임’이라는 주제에 대한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회에는 이기수 본교 총장, 김정호 본교 법학연구소 소장, 본교 법과대학 김선택 교수, 계획열 명예교수가 참석하였고 사회는 본교 법과대학 김하열 교수가, 통역은 성균관대 연구교수인 박진애 박사가 담당하였다. 이번 강연은 2008년 9월 2일에 개최된 세계헌법재판소장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림바흐 교수를 본교에서 초청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 독일 Trier대 Rolf Birk 교수 초청강연

독일 Trier대에서 노동법 전공교수와 유럽공동체 노동법 및 노사관계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Rolf Birk 교수의 강연이 2008년 10월 7일 화요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통역은 박지순 교수가 진행하였다. 『독일의 산재보험제도』, 『독일의 2006년 일반균등대우법과 노동법상 균등대우원칙』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뤄졌다.

● 선배 변호사 특강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에서 CEO로』라는 주제로 (주)키이스트 대표이사인 표종록(법90) 교우의 특강이 2008년 9월 29일 월요일에 있었다. 표 교우는 사법연수원 31기로 법무법인 신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고, (사)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홍보이사와 성균관대 대학원 공연예술협동과정 겸임교수이며, 방송작가협회, IHQ, SidusFNH, JYP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강제규필름, 타이거픽처스 등의 법률자문변호사로 활동했고, 현재 (주)키이스트의 대표가 되어 변호사에서 CEO로의 변신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특강은 법대 후배들에게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역할, 그리고 CEO가 된 계기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 2008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08년 8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법과대학 신관 5층 501호에서는 일반대학원의 학위수여식이 거행되었다. 이번 학위 취득자 명단과 학위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박사학위 취득자 및 학위논문

조득주 취업규칙제도에 관한 연구
박영목 이행불능에 관한 연구
박주영 피학대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이근우 行政刑法의 再構成
- 概念, 構造, 節次 -
서근복 改良技術 라이선싱에 대한 獨占規制法上 規制
이상훈 事業認定에 관한 公法的 研究
김상만 産業設備輸出에서 金融調達 方法에 대한 法的研究
류충현 국회의 입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교육관계법의 심사사례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 취득자 및 학위논문

남천규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조민영 養育費請求權
- 그 理論과 實際 -
장진영 유럽연합 무역관련 환경규제의 통상법적 고찰: REACH를 중심으로
구성림 공정거래분야에서 ADR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
- 동의명령제도를 중심으로 -
이득진 주거권의 헌법적 보장과 실현방안
노병철 生活補償에 관한 研究
- 生活補償請求權을 중심으로 -
김상우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規制에 관한 研究
이진규 민사조정제에 관한 연구
- 미국 민사조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최인정 교정제도 민영화에 관한 연구
- 아가페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준비를 중심으로 -
이진서 産業資本의 銀行 所有 規制에 관한 研究
유철희 입법과정에서의 헌법주의 실현에 관한 연구
- '자율적 규범통제'의 의의와 입법과정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
송선미 상표패러디의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
임예준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n International Law
정재은 북한과 국제법
- 북한 조약법을 중심으로 -
강민국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제도의 인정 근

법대소식

- 거에 관한 연구
- 사회상당초과위험감수론의 체계와 적용 -
- 이태영 중재합의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 김선미 미국의 일방주의가 국제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이규엽 금융감독법령상 과징금 징수제도에 관한 연구
- 김아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서의 개인 정보에 관한 연구
- 이현미 단체협약의 기본권에 대한 구속
- 김현아 중국 중재법상 국제상사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연구
-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중심으로 -
- 박찬동 국제장외과생상품계약에 관한 연구
- 최승룡 테러피해자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권은경民法上 夫婦財産關係 改善方案에 관한 연구
- 최지필 독점규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조민희 자끄 데리다(J. Derrida)의 해체주의와 법 여성학의 이해
- 김현정 민간보안용역업체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이상희 안락사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 최세련 海上運送에서의 히말라야 條項에 대한 연구

◆ 법무대학원 소식 ◆

● 200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8월 27일 수요일에 법과대학 신관 5층 501호에서는 법무대학원 학위수여식이 거행됐다. 이번 학위 취득자 명단과 학위 논문은 다음과 같다.

석사학위 취득자 및 학위논문

- 박주봉 不動産信託의 法理에 관한 研究
- 信託終了時의 法律關係를 中心으로 -
- 모경순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대한 監督義務者

- 의 責任
- 김영진 공적자금 투입 유발 기업의 범죄와 그에 대한 대응
- 김용태 債權者取消權 行使와 關聯된 實務上 問題點 研究
- 信用保證基金 事例를 中心으로 -
- 송영삼 不動産 競買에 있어서 留置權에 관한 研究
- 金融實務上 問題點과 改善方向을 中心으로
- 이행림 증권투자신탁과 수익증권의 환매 : 그 본질과 실무
- 이재만 우리나라 金融持株會社制度의 現況과 發展 方案
- 강병구 증권범죄에 있어서 비상장주식 평가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 김지희 醫療過誤에 따른 看護師의 法的責任에 관한 研究
- 정미영 韓方醫療紛爭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연구
- 韓國消費者院의 韓方醫療 被害救濟를 中心으로 -
- 장경준 治療中斷의 刑事責任에 대한 專門醫, 辯護士, 一般人의 認識差異에 대한 研究
- 우광제 이용발명에 관한 연구
- 이용발명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
- 송영옥 불공정 무역행위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박우근 퍼블리시티권의 도입 및 이전성에 관한 고찰
- 금현덕 遺傳工學 關聯 技術의 法的 保護에 관한 研究
- 표종록 연예인 전속계약에 관한 법적문제점
- 박인기 SW知的財産權 代替的 紛爭解決(ADR) 法 · 制度 改善 및 活性化 方案에 관한 研究
- 손두진 자치법규에 의한 차별사례 검토와 이에 대한 효과적 통제방안의 연구
- 양동석 지방옴부즈만제도의 활성화방안 연구
- 김광호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장설치를 위한 입지 선정에 관한 법적 연구
- 권기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규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학관 자치경찰 사무의 성질과 합리적 사무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 2005년 정부발의 「자치경찰법안」을 중심으로 -
- 조순남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사례 분석과 그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

- 권대식 중국 정부조달법 분석
- 중국의 WTO GPA 가입의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 송영재 온라인게임의 중국시장 진출에 관한 연구
- 한·중 FTA 추진을 위한 대응방안 -
- 홍익표 21C 테러 양상에 따른 경찰의 역할
- 이동환 형사질차상 '內査'와 경찰작용상 '搜查前處分'
- 이은경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국내 집행과 도입에 관한 제문제
- 류지철 外國 仲裁 判定의 承認과 執行에 關하여
- 이석우 訴訟代替의 紛爭解決 方法에 關한 研究
- 民事調停制度의 生活化를 中心으로 -
- 김세곤 통합도산법상 개인도산법제에 관한 연구
- 황선정 産災保險料의 滯納處分과 強制執行의 競合에 關한 研究
- 채권압류를 중심으로 -
- 김흥기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를 통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사업손실보상을 중심으로 -

● 2008학년도 후기 입학식

법무대학원은 2008년 9월 1일 월요일 오후 7시에 2008년도 후기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입학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대학원장 하경효 교수를 비롯하여 다수의 법대 교수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학생 소식 ◆

● 2008 정기고연전



어느 해보다 급작스럽게 다가온 2008년 정기고연전은 값진 땀과 눈물의 붉은 물결로 흘러갔

다. 고대인 모두에게 진한 아쉬움과 깊은 감동을 선사한 9월의 축제는 막바지 여름 날씨보다 뜨거웠다. 2008년 9월 5일 금요일과 6일 토요일 잠실과 고양에서 열린 '2008 고연전'에서 본교는 첫째 날 농구와 야구 경기에서 연세대와 1승씩 나뉘가지며 순조롭게 출발했으나, 둘째 날 럭비와 축구 경기를 내리 내주며 최종전적 1승 1무 3패로 연세대에 종합우승을 양보했다. 야구는 연세대가 본교를 압도했다. 선발투수 신정락(사범대 체교06)선수가 무너진 것이 문제였다. 3회 초 신정락 선수는 연이은 데드볼과 볼넷으로 세 명의 주자를 내보내 만루 위기를 맞으며 강판됐다. 이후 1학년 윤명준(사범대 체교08) 선수와 임치영(사범대 체교08)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지만 첫 경기전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한회에 7점을 실점했다. 본교 선수들은 연세대 1학년 나성범 투수에게 막혀 안타 5개만을 성공하며 2득점에 그쳤다. 결국 본교는 연세대에 2대 9, 7점차로 패했다. 농구는 본교가 경기전 4연승을 달렸다. 본교는 연세대 선수들의 빠른 돌파에 이은 골밑슛으로 28점을 실점하며 1쿼터를 마쳤다. 2쿼터 시작, 임정명 감독은 '높이'로 승부를 봤다. 장신센터 하재필(사범대 체교06)선수와 방경수(사범대 체교06)선수를 모두 코트에 내보낸 임 감독은 상대의 공격을 푹푹 묶으며 38대 34, 4점차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전은 양팀 모두 박빙이었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던 농구는 결국 74대 72, 2점차로 승리했다. 아이스하키는 경기전 역사상 처음으로 고양에서 열렸다. 매년 연세대 선수들의 홈인 목동에서 경기를 치르던 우리 선수들은 본교와 빙질이 유사한 고양에서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발휘했다. 본교는 2피리어드 신상우(사범대 체교06)선수의 선취골로 앞서나갔지만, 3피리어드에 연세대 김동연 선수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다. 둘째 날 럭비는 경기전 3연승에 실패했다. 초반에 10점을 먼저 내주며 주춤했던 럭비부는 곧바로 10점을 따라가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연세대 김돌 선수와 제갈빈 선수에게 트라이를 허용하며 최종스코어 21대 27로 경기를 마감했다. 럭비부가 자랑하는 포워드 라인의 부진이 아쉬웠던 경기였다. 이어 열

학생소식

린 축구 경기는 연세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권순형(사범대 체교05)선수에서 이용래(사범대 체교05)선수로 이어지는 우리 공격은 경기 내내 연세대 골문을 위협했지만 연세대 김다솔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득점에는 실패했다. 결국 후반 25분 남준재 선수에게 골을 내주며 우리 학교는 0대 1로 패했다. 한편, 아마추어 고연전은 우리학교가 △야구 6대 5 △농구 56대 60 △빙구 6대 2 △럭비 21대 5 △축구 2대 0으로 마쳐, 최종 스코어 4대 1로 승리했다. 고연전은 끝났지만 사이버고연전이 열렸다. 2008년 9월 19일 금요일 연세대 백양로 삼거리에서 온게임넷 <인크루트 스쿨쇼다운- 2008 사이버 고연전>이 열렸다. 사이버고연전 행사에서는 프로게이머 이종미, 서지수 선수가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본교는 서든어택, 스타크래프트 부문에서 승리했다. 한편, 2008년 9월 1일 월요일부터 ‘나눔 고연제’도 열렸다. 9월 첫째 주에는 ‘레드셔츠데이’, 이어서 9월 8일 월요일부터 11일 목요일까지는 △소원나무 △동전 쌓기 △보물찾기 △나눔 경매 등 다양한 기부행사가 열렸다. 11일 목요일에 열린 ‘나눔 경매’에선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으로부터 소장품을 기증받아 경매에 부쳤다. 베이징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사범대 체교05) 씨도 소장품을 기증했다. 경매 수익금은 사랑의 열매 후원으로 ‘다비드의 집’에 기부할 예정이다. 고연전 기간 동안에는 학생 헌혈 행사와 교우모금행사가 진행됐다. 교우모금행사의 수익금은 소외계층에게 배달될 연탄 준비에 쓰일 예정이다.

● 제24회 모의헌법재판 개최

2008년 9월 2일 화요일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에서 주최한 제24회 모의헌법재판이 인촌기념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4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법과대학의 중요한 연례행사로 자리 잡은 모의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과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을 공법학과 학생들이 재현하는 행사이다. 공법학회는 매년 시사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위헌, 합헌의견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판결을 내려서 수준 높은 헌법재판을 연출해왔다. 올해 24회째 맞는 이번 모의헌법재판의 주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 법)의 위헌여부이다. 특히 ‘로스쿨 법’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에서는 법학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로스쿨이 설치되는 모든 대학들의 법학도들에게 의미 있는 주제라 할 수 있다. 전반부의 심리에서는 ‘로스쿨 법’의 위헌법률 심판 청구인측 증인들과 피청구인측 증인들 간의 논쟁이 전개되었다. 후반부의 평의에서는 9명의 재판관들이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이 제시한 각각의 근거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게 다뤄 보다 높은 수준의 논의를 보여주었다. 선언된 판결에서는 다수의견을 지지하는 재판장이 ‘로스쿨 법’의 조항들이 개인의 수락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동시에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며 재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모의헌법재판은 ‘로스쿨 법’에 따라 법학부가 폐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막으로 열리게 된 모의헌법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유에선지, 모의헌법재판에 참여한 출연진들의 모습은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보였다. 또한 실제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학문적 수준 또한 매우 높았다. 강평을 하러 무대에 올라오신 본교 법과대학 김하열 교수도 모의헌법재판에서 다루는 법리들이 매우 수준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극찬하였다. 설사 로스쿨의 설치로 법학부가 폐지되더라도 모의헌법재판의 전통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 제40회 형사모의재판 개최



2008년 9월 4일 목요일 오후 6시 인촌기념관에서 법과대 형사법학회 주최로 제40회 형사모의재판이 열렸다. 이날 모의재판은 법과대학이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는 내년부터는 개

최근 불투명해 ‘마지막 모의재판’으로 관심을 끌었다. 형사모의재판은 보성전문시절인 1939년에 시작되어 우리나라 모의재판의 시초를 만들어내었으며, 긴 역사만큼이나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자문을 얻고자 전국에서 찾아올 정도로 고대법대의 자랑거리라 할 수 있다. 매년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를 재구성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법학도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고 법학이론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좋은 자리가 되어왔다. 이날 ‘성형수술 부작용을 일으킨 성형외과의사의 형사책임’을 주제로 형사모의재판이 개정되었다. 형사법학회에서는 이법 형사모의재판을 통해 미용성형의 경우 어느 정도의 부작용 증상을 법적인 상해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 그리고 의료소송의 입증책임 문제를 중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 사안을 형법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승낙이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진료를 거부하기도 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나 범행이 경미하여 초범이라는 점에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하였다. 폐정 후, 형사법학회의 본교 법과대학 하태훈 지도교수는 진행과 판결내용이 의료과오 사건을 담당할 법관이 참고해야 할 수준이라고 강평하였다. 본 형사모의재판에서는 일반적인 서면에 의존한 재판 진행보다 구두변론을 통한 공방이 핵심이 되어 판결의 설득력을 높였다. 또한 배심제를 채택하여 일상생활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한편 뒷풀이에서는 1979년 16회 이후로 중단된 모의재판을 5년 만에 부활시켜 현재에 이르게 한 17회 준비위원(위원장=강전찬·법학81)을 비롯한 50여명의 선배 교우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제13기 튜터링 프로그램

본교 법과대학(학장=하경호 법과대학 법학과, 이하 법과대)이 ‘제13기 튜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튜터가 된 학생들은 2008년도 9월 30일 화요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8주간 학습의 방향과 여러 가지 노하우에 대한 조언을 듣게 된다. 주로 법조계로 진출하는 법대의 특성상 선배들의 시행착오와 경험, 지식 등을 들어볼 수 있는 튜터링 제도는

그 동안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법과대 홈페이지(www.korealawschool.com)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법과대 1층 튜터링 행정조교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법과대 재학생 △법과대 복수·이중 전공자 △법과대 휴학생이며, 지원자 전원이 참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이다.

◆ 교우회 소식 ◆

□ 2008年度 定期高·延戰 뒤풀이 행사 개최



법대교우회(회장 송정호·61)와 법대 61학번 동기회(회장 주성수·61)는 지난 9월 6일 토요일 이틀간의 정기고·연전이 끝난 후, 암암캠퍼스 참살이길에 있는 주점 세븐티투에서 2008년도 정기고·연전 뒤풀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고대인의 기개로 잠실운동장 등을 뜨겁게 달구었던 2008년도 정기고·연전의 경기 결과는 1승 1무 3패로 아쉬움이 컸으나 이날 뒤풀이 축제에 모교 법대생 뿐 아니라 연세대학교 학생들도 대거 참여해 고연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으며, 고대와 연대를 구분하지 않는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교우회소식

□ 2009년도 정기총회 준비모임 개최

법대교우회(회장 송정호·61)는 지난 10월 8일 서초동 소재 세종원에서 2009년도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모임을 가졌다. 송정호 회장은 이 자리에서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80년대 이후 학번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09년도 정기총회 주관 학번인 69학번의 송원택 동기회장, 2009년도 정기총회 준비위원장 이정수 교우를 비롯하여 준비위원 김광로, 류도열, 이덕형, 이종연 교우와 2008년도 정기총회 준비위원 장기완(68), 법대교우회 총무이사 윤춘식(84) 등이 참석하였으며, 2009년도 정기총회는 2009년 2월 1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 법대교우회 기부금 전달식



안산병원은 지난 9월 29일 월요일 법대교우회(회장=송정호·법학61)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 2월 법대 교우회를 통해 마련된 5000만원을 고려대의료원에 전달 된 것으로, 전달식을 통해 안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세 아이에게 전달됐다. 전달식에는 안산병원 박정률 부원장, 임송근 경영관리실장과 지원받는 아이들의 부모가 참석해 기부금의 의미를 더했다. 법대 동문들의 사랑을 전달받은 아이들은 모두 미숙아로 태어나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다.

□ 高大法大校友會 任員分擔金 (2008年度 年會費) 納付 現況 (2008. 10. 08日 現在)

- 2008. 10. 9일 이후 납부자는 법대소식지 차기호(제53호에 게재 예정)

○ 顧問

구기환(50) 이정우(51) 이준승(53) 박수길(55) 박종석(55)
이용만(55) 김양현(56) 이동호(56) 황의빈(56) 이종남(57)
허은도(57) 김기수(58) 임채정(60)

○ 諮問役

조식원(51) 이석선(52) 김형배(53) 구종태(56) 이근영(57)
이해구(57) 구응모(58) 손주환(58) 김수영(59) 이각범(59)
이용남(59) 김극년(60) 문병대(60) 유재호(60) 송정섭(61)
유지담(61) 김명신(62) 김목민(62) 김재만(63) 유관열(64)
윤배선(64) 김연태(65) 주선희(65) 김사일(66) 채이식(67)
김성호(68) 박정규(69) 변진학(69) 이귀남(69) 정진호(71)

○ 名譽會長

이기수(65)

○ 會長

송정호(법61)

○ 副會長

김각영(62) 맹건영(62) 이진강(62) 유정주(63) 이팔성(63)
이영복(64) 전영주(64) 오세립(65) 이근웅(65) 이기수(65)
이종찬(66) 채영수(66) 김종빈(67) 이관희(68) 이정수(69)
소진세(70) 조옥환(70) 송인희(71) 전병현(71) 홍기종(73)
김영범(74) 허태수(76) 이재현(80)

○ 賞罰委員長

석영철(62)

○ 理事

노정현(51) 박승규(54) 염보현(54) 이원규(54) 최병훈(54)
김영기(55) 성낙승(55) 신태희(55) 심상기(55) 윤광민(55)
이두정(55) 민경현(56) 이병국(56) 주재우(56) 권 석(57)
김태선(57) 송병욱(57) 조동암(57) 황무임(57) 김병용(58)
박소연(58) 안치한(58) 이기창(58) 허재영(58) 김광의(59)

교우회소식

변중화(59) 송문일(59) 신달석(59) 양신기(59) 이계철(59)
 이기재(59) 이보영(59) 이승하(59) 지용기(59) 고낙승(60)
 광종완(60) 김복주(60) 김영준(60) 김진원(60) 노재동(60)
 배영호(60) 윤석민(60) 이상진(60) 이승복(60) 이종태(60)
 고석환(61) 고학용(61) 김 향(61) 김 호(61) 김문용(61)
 김 근(61) 김종영(61) 김종태(61) 김충조(61) 김화남(61)
 남궁진(61) 남상철(61) 민병서(61) 민효기(61) 박재홍(61)
 박종오(61) 박종환(61) 박창규(61) 백중현(61) 송기원(61)
 신광옥(61) 신순우(61) 신응순(61) 신정용(61) 안윤식(61)
 여정희(61) 이경재(61) 이기철(61) 이우근(61) 이용한(61)
 이종석(61) 이현희(61) 이홍식(61) 이희준(61) 전병철(61)
 조성하(61) 주성수(61) 차영준(61) 최순강(61) 한용제(61)
 허경석(61) 홍창대(61) 황서수(61) 김대운(62) 김지수(62)
 신정치(62) 신현호(62) 유세준(62) 윤성림(62) 정계남(62)
 채창남(62) 최종문(62) 김석조(63) 손평업(63) 오방남(63)
 정성욱(63) 정태련(63) 홍병래(63) 김지환(64) 이용부(64)
 이택천(64) 박성도(65) 신창준(65) 양상훈(65) 주대경(65)
 권영석(66) 김기신(66) 도규만(66) 안영기(66) 양태중(66)
 이만희(66) 정장섭(66) 금병주(67) 박근영(67) 박응복(67)
 박장선(67) 박종국(67) 양동석(67) 윤종태(67) 이광순(67)
 이우윤(67) 장재경(67) 노태기(68) 권오봉(69) 김광로(69)
 송원택(69) 오태승(69) 윤여선(69) 김종성(70) 김종원(70)
 나천수(70) 배종대(70) 서현수(70) 이승계(70) 이승창(70)
 조상호(70) 김용진(71) 김종진(71) 남일호(71) 이상호(71)
 이 규(71) 이영근(71) 조성익(71) 김선흠(72) 임동호(72)
 전운기(72) 홍준표(72) 강계두(73) 강병규(73) 강종원(73)
 김수창(73) 김찬근(73) 박원세(73) 백성운(73) 오세욱(73)
 이경재(73) 임상현(73) 정주식(73) 차남규(73) 이춘희(74)
 정교순(74) 조성규(74) 허병익(74) 김형진(75) 노환균(75)
 송영중(75) 김성갑(76) 최용규(76) 광상욱(77) 박진홍(77)
 서보현(77) 성용락(77) 임영철(77) 전만수(77) 정은조(77)
 최중현(77) 한상대(77) 국중돈(78) 길태기(78) 김승섭(78)
 김영혜(78) 심동섭(78) 이춘호(78) 장영수(78) 최종우(78)
 고규영(79) 권오용(79) 김민재(79) 오세훈(79) 정동민(79)
 홍승기(79) 이주영(80) 최병규(81) 한대삼(82) 이경현(83)
 윤춘식(84) 이견태(84) 황운영(84) 이철진(85) 태원우(87)
 송인권(88) 안병민(88) 이병준(89) 이상진(89)

2008/03/27 100,000원
 2008/04/18 100,000원
 2008/07/04 100,000원
 2008/07/22 100,000원

※上記 入金人께서는 務理事
 (Tel:031-978-1905, orea@yooni.com)에게
 連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員分擔金(年會費) 納入 計座

은행계좌	하나은행 214-910013-8190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회
지로번호	7650479
분담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 자문역 : 500,000원/년 ○ 회장 : 3,000,000원/년 ○ 부회장, 감사 : 1,000,000원/년 ○ 이사 : 100,000원/년

※ 2008.06.12일 회장단 연석회의에서 2008년
 도 기준으로 고문은 49학번 이전 교수, 자문역·
 이사는 57학번 이전 교우의 임원분담금(연회
 비)을 면제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자발적인 후원
 금 납부는 가능하십니다.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회
 주소 : (137-87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1번지 서보빌딩 3층
 전화 : 02-535-8900
 팩스 : 02-535-8870

※ 문의사항이나 주소 등 변경이 있으신 분은
 총무이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회
 총무이사 윤 춘 식(법84)
 전 화 : 031-978-1905 < Fax 겸용 >
 이메일 : korea@yooni.com

○ 特別後援金

안순덕(59) 300,000원(2008/06/12)

○ 姓名 未詳

2008/03/19 100,000원
 2008/03/27 100,000원

홍혜랑(법59) 선배님을 찾아서...



▶ 건강은 어떠신지...

특별히 아픈 곳은 없습니다만 체력이 딸릴 때에는 늙어가고 있음을 느껴요. 나이 들면서 마음도 좀 함께 늙어줘야 하는데 마음이 늙으려 하지 않으니 균형이 깨지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몸에게 미안할 만큼 게으른 편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화타오금희라는 고대 중국의 기체조를 배우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지만 흥내를 내고 있어요. 호랑이, 곰, 사슴, 새, 원숭이 다섯 가지 동물의 형태를 모방해서 만든 심신수련법이라고 해요.

▶ 요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두어 달 전 35년 동안 살던 수유리 집을 떠나 남쪽 우면산 밑으로 이사를 했어요. 나이 든 주부가 겁도 없이 이사했다가 후유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정년퇴임 후 고향으로 낙향했던 남편이 10여 년 간의 홀아비 생활을 끝내고 우면산 밑으로 환도한 겁니다. 저 혼자 자유분방하게 이곳저곳 다니며 공부하던 재미를 아쉽게도 접어야 할 때가 많아요. 그 대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오히려 조용한 가운데 일상이 더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특히 신앙과 종교의 문제에 전에 없이 천착하게 되네요. 꽤 오래 동안 기독교의 명찰을 달고는 있었지만 막상 저에게 무슨 종교를 갖고 있느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인 구상 선생님이 일찍이 기독교 모태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자신의 영혼을 가리켜 '저주받은 영혼인가'

라고 한탄한 적이 있지요. 저도 내면적인 방향이 없지 않았습시다. 요즘은 신앙문제에 올인하고 있는 듯해요.

▶ 평소 취미 생활은...

저는 여행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 때문에 떠나고 싶을 때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늘 '떠나야지, 떠나야지' 증후군을 앓으면서 살아갑니다. 가족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저는 여행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되짚어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 자신의 감정, 정서, 사유까지를 지배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요. 통속에서 나와야 통을 굴린다는 말이 있듯 바깥 세계로 나가면 자기 자신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자기존재회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행을 하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행운이 주어집니다. 또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수십 년 살던 집 앞의 골목이 낯설고, 벽에 걸린 그림도 부엌의 식탁도 모두 낯섭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신선함은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매력 있는 보너스이지요. 언젠가 저의 여행기를 별책으로 내보고 싶어요.

▶ 가족 이야기...

저는 결혼 45년차 주부입니다. 4남매를 두었고요. 위로 딸 셋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막내 아들은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요즘 결혼연령이 늦어지긴 했지만 나이 삼십이 훌쩍 넘었으니 며느리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우리 부부와 아이들 넷이 모두 고대가족이니 집안에 이단자는 없습니다.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큰 딸네만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큰 딸애는 미국 정부의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 바빠서 올 수 없으니 바쁘지 않은 우리 부부가 올 겨울 방학엔 미국에 가서 만나보고 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결혼 후 교사생활을 접었다가 아이 키워놓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셋째 딸은 서울에서 대학 강단에 있고 아들은 경영학을 전공하고 금융회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신 후 독일 Marburg대학에서 현대 독일어를 전공하셨는데, 전공을 바꾸신 이유가 있는지...

애시당초 제가 독일에 간 것은 저의 학문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독일유학을 떠난 지 1년 후 1967년에 독일로 가긴 했지만 독일 땅을 밟는 순간부터 유학 7년 동안의 삶은 오늘날의 유학생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날의 아프리카 후진국만큼 가난하던 한국의 화폐가 선진국 유럽 땅에 가서 맥을 쓸 수가 없었지요. 저 뿐 아니라 모든 유학생의 아내들은 예외 없이 자신의 공부를 포기하고 호구를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나마 공부를 하겠다고 덤벼든 무모한 여인은 유학생 아내들 중에 저 하나 뿐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독일 체류기간동안 독일어 하나만은 제대로 익혀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더라고요. 넘어지더라도 발밑에 있는 돌 하나는 들고 일어서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법대 학부시절부터 독문과로 전과하고 싶어 안달을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석사과정까지 법학을 했으니 저의 삶은 이렇게 마음 따로 몸 따로일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독일 땅에서조차 독문학의 꿈을 접고 현대독일어를 전공할 수밖에 없었죠. 삶의 여정에서 상황의 힘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귀국 후 20여 년 동안 대학에서 교양독일어를 가르치긴 했지만 글자 그대로 교양수준을 넘지 못했으니 전공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진실로 전공을 바꾼 것은 수필창작을 시작한 1990년대 초라고 생각합니다.

▶ ‘자유의 두 얼굴’, ‘이판사판’ 등의 수필집을 발간하시고 올 3월에는 제26회 현대수필문학상도 수상하셨는데, 문학의 길로 들어선 계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선배님께 문학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의 출작 수필집들에 대해서 그 동안 문단이 아닌 모교 법대에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나이 50대 중반에 들어서니 교양독일어 가르치는 일을 끝내고 나면 무슨 일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독일어의 문법과 씨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번역은 정년 후에도 사사로이 할 수 있는 작업이니 그리로 관심을 가졌죠. 막상 부딪치니 외국어도 외국어지만 우리말 문장력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습작을 위해서 어느 문예원을 찾은 것이 수필창작의 계기가 된 셈이지요. 처음엔 습작을 위한 창작이었지만 차츰 나 자신의 삶과 영혼에 천착하는 글을 쓰다보니 남의 글을 번역하는 것보다 훨씬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학창시절 품었던 문학의 불씨가 아주 꺼지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꺼져가

던 생명의 불씨를 스스로 감지할 때의 가슴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떤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늙은 어부의 때늦은 뱃길이지만 제가 노년에 이 뱃길 위에서 ‘방황’을 껴 안고 사랑하게 된 것은 제 삶의 구원이라고 여겨집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은 방황하기 마련이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든 괴테의 파우스트적 메시지에 저는 한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다 치고, 세상에는 법학을 전공하다가 문학으로 전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괴테, 쉴러, 하이네 등이 그랬고 가까운 우리 법대에도 전공을 문학으로 바꾸시지는 않았지만 평생 문학을 그리워하시던 두 분 선생님이 계셨지요. 유진오 선생님과 이항녕 선생님이 시지요. 두 분 선생님께서 문학에 연연하시던 기록을 보니 눈물겹기까지 해요. 특히 저는 이항녕 선생님께서부터는 학부시절과 대학원 시절 그리고 최근까지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돌아가시고 나니 너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 가눌 수가 없네요. 제가 바쁘게 살다보니 선생님 살아계실 때 선생님의 작품세계에 대해서 좀 도 소상히 여쭙고 지도받지 못한 것이 한이 되네요. 요즘 저는 이항녕 선생님의 작품들을 다시 찾아 읽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작품들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특히 법학과 문학의 친족성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법학은 사회를 파악해야 할 수 있는 학문인데 사회를 제대로 알려면 사회구성원인 인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법학과 문학은 서로 등 돌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항녕 선생님의 글을 읽다보면 법학도로 출발했던 괴테, 쉴러, 하이네 등이 문학으로 전향한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 작가를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 작가로서 갖춰야 할 자질이나 소양은 어떤 것이 있는지...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완성한 후 다시는 그 작품을 읽지 않았답니다. 글을 쓰는 동안 자신의 영혼과 가슴이 감당했던 고통을 다시 체험하기가 겁이 났다고 합니다. 비록 픽션인 소설을 쓰는 동안에도 작가의 가슴은 논픽션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 때에만 독자의 가슴에 전율처럼 작가의 영혼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친한 사람이라야 문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문학을 희망하는 어떤 청년에게 '쓰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쓰라' 고 한 것도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배우자이신 법과대학의 심재우 교수님과 법과 문학이라는 다른 길을 걸으시면서 겪었던 재밌는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지...

특별히 재미있는 얘기가 없으니 일상적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네요. 자신의 작품에 대한 가장 열렬한 독자는 작가 자신입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 다음으로 열렬한 독자가 있다면 남편이이예요. 저의 졸작품집이 나올 적마다 우리집 아이들은 '엄마 책 속에서 아빠가 보인다'고 해요. 남편이 내 책을 읽어주는 것도 그러고 보면 책 속에서 일렁이는 저의 방향이 비록 선명하진 않지만 어딘지 남편 자신의 정신적 실루엣을 닮아 있어서인지도 모르겠어요. 살면서 닮은 건지, 닮은 데가 있어서 만나 살게 됐는지 모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편안한 삶을 안식이라고 믿지 않는 점인 것 같아요. 남편의 전공인 법철학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갱도가 무척 깊은 학문이라고 느껴집니다.

▶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아직도 고통의 바다에서 표류하며 위기를 느낄 때가 허다해요. 사람의 인격은 어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덕목의 균형 속에서 형성되는 것 아닌가 해요. 갈등과 불안은 곧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이지요. 균형 잡힌 인격의 극점은 태어날 때의 본성이겠지요. 균형은 늘 제가 이르지 못하는 피안의 덕목입니다.

▶ 앞으로 또 다른 관심분야나 활동계획이 있다면...

물러날 때 물러나야 하는 건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자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문학의 정년은 나이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켜야 할 정년은 있지요. 영혼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 생명력을 잃어가면 쓰지 않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내 안에서 언제까지 생명이 꿈틀거리 줄지 알 수 없지만 그 때까지 계속 방향하며 노력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특히 여성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전공이 법학이든 문학이든 그 밖에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한 가정의 주부, 아내, 엄마라는 신분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건 여성이라는 피조물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모든 가정 내의 역할들이 여성의 자기실현에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제 스스로 체험했지만 인생을 다 살고 결산할 때 손익계산서를 손에 쥐어본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니 조금은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해요. 그러나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아기를 낳아 잘 기를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국가적, 사회적 복지시설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자녀양육의 문제는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복지시설이 미흡하기 짝이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척박한 학문적 풍토에서 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해외유학을 떠난 5, 60년대 유학생들이 유학 1세대였습니다. 나라가 어렵던 시절 그들이 오늘의 상아탑을 쌓는 데에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비록 독일 유학시절 저 자신은 풍요로운 학문적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남편 옆에서 시대를 함께 목격하며 현장을 경험한 것은 저의 인생 속에 큰 의미로 새겨져 있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대로 저의 삶을 오늘까지 이끌어 온 것도 팔할이 바람이었지 싶습니다.

◎ 略 歷

숙명여고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

독일 Marburg대학 독어독문과에서 현대 독일어 전공

한국의국어대학교 독일어과 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한국의국어대학교 등 강사 역임

◆ 동기회 소식 ◆

• 68학번 입학 40주년 총장초청 모교방문



고려대(총장 이기수)는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 화정체육관에서 총장 초청 68학번 입학 40주년 모교방문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학교와 교우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식전행사에는 캠퍼스 버스투어, 특별사진전 등이 마련됐으며, 본격적인 공식행사는 오후 6시부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수 고려대 총장, 친신일 교우회장, 권기택 68학번 동기회 회장(경영대 초빙교수)을 비롯한 68학번 교우와 68학번 재학당시 은사가 참석했다.

• 78학번 동기회 입학 30주년 기념 모교방문축제



78학번 동기회(준비위원장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는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화정체육관에서 고려대 78학번 입학 30주년 기념 모교방문축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에셋금융그룹 박현주 회장(78학번 경영)을 비롯해 78학번 입학교우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후 1시 30분부터는 사진 행사로 캠퍼스 투어, 포토 존, 만남의 광장 등이 진행됐다.

교우소식

◆ 화제의 교우 ◆

• 여자교우회장 나길자 교우



“여자교우회는 저에게 있어 친정 같은 곳이죠.” 지난 2월 28일 열린 여자교우회 정기총회에서 여자교우회장으로 추대된 **나길자**(법62) 교우는 여자교우회와의 인연을 이렇게 말한다. 1962년 모교 법대에 입학한 여학생이 나 교우 1명 밖에 없어 ‘미스 고대’로 유명했다는 나 교우. 여학생이 없어 늘 혼자였던 그녀는 여자교우회의 발족과 함께 지금까지 가장 활동을 활발히 한 여자교우다. “1967년에 대학 최초로 여자교우회를 발족한 이래 초창기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개척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창립 초기에 막내로 들어와 지금까지 여자교우회의 역사를 함께 해 왔습니다. 여자교우회 활동에 저만큼 많이 참여한 사람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예요. 사실 초창기에는 회원도 적었고 재정도 취약했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제약이 많았던 시기라 교우회 활동을 하기도 하나같이 어려웠어요. 적은 회원이나마 하나가 되어 활동한 시기였죠. 그 때는 ‘고대 여자’라는 자부심으로 연대하고 교우회에 대한 애정으로 힘을 모아 활동했던 것 같아요.” 활동이 어려웠던 초창기 여자교우회에서 가장 먼저 한 활동 중의 하나는 장학금 모금 사업이었다. 교우회 발족을 마친 후 가장 먼저 목적사업으로 채택한 것이 장학금 모금 사업이었던 것이다. 여자교우회는 대학 최초로 여자교우회를 창립한 것에 이어 대학 최초로 장학금을 지급해 총교우회보다 먼저 장학금을 지급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여자교우회 제2대 회장님은 당시에 지방까지 돌면서 장학금을 모금했어요. 그 때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먼 곳까지 찾아오실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죠. 회원이 적어서 십시일반으로 장학금을 모으는 것 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장학금이라고 하면 한사람이 목돈을 쾌척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교우회는 정말 주머니 싹뚫돈을 조금씩 모아 목돈을 만들었죠. 그렇게 모금을 하

다 보니 1994년에 석란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었고 장학금 규모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장 뒤에는 많은 여자교우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현재 한 학기마다 재단 장학금으로 2명, 여자교우회 장학금으로 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여자 교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교우들의 참여가 확대되면 더 많은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 사회에는 알파걸 바람이 불 정도로 여성 인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나 회장은 앞으로의 모교 경쟁력은 여자 교우의 인력개발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고대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듯, 고대 여성의 발전이 모교의 발전, 나라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여학생의 입학이 비약적으로 늘고 여자 교우 역시 5만 여명으로 늘면서 여자교우회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지난 1학기에 여학생위원회와 함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법조계, 금융계, 언론계 등 전문분야의 여성 교우들과 후배들이 모여 후배들에게 필요한 사회경험을 나눴는데 진작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성적 권위주의가 많이 사라지는 등 과거보다 사회가 많이 발전했지만 여성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어려움은 여전히 산적해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들만의 실질적인 사회경험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번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여자교우회 주관으로 선후배간 연결통로를 만든 것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학기 중이라 점심시간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 아쉬워요. 그래서 8월경에 ‘멘토&멘티’ 프로그램 성과를 점검하고 후배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앞으로도 꾸준히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후배들의 사회생활에 교우회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네요.”

여자교우회 40주년을 맞아 《여자교우회 40년 역사》를 펴내고 《여자교우명부》를 발간한 여자교우회는 교우회의 역사는 물론 여자 교우들의 숫자 및 사회진출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됐다. 지난해 ‘회원찾기 운동’과 병행해 발간된 이번 명부는 앞으로의 여자교우회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자교우명부》 발간으로 여자 교우들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이제 ‘회원 참여확대 운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는 학번, 직능, 지역별로 소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예전에 회장님들께서 하셨던 것처럼 발로 뛴 생각입니다. 특히 젊은 교우들의 참여를 촉진시켜 다양한 연령층의 여 교우들이 교우회에 모여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 여 교우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면 후배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나고 모교 경쟁력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자교우회를 친정으로 생각하고 고대 여자 교우라는 이름 하나로 지금까지 든든하게 살아왔다는 나 교우. 참여하는 여자교우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나 회장의 미소가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 성공적 민영화 확신한 우리금융회장 이팔성 교우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팔성(행정63) 교우는 지난 7월 30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금융의 최우선 과제는 성공적인 민영화”라며 “우리금융이 민영화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기 중에 성공적인 민영화 완성과 지속적인 M&A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 재편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 금융기관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국내에서 다 가지고 있고 우리금융그룹도 90%이상은 국내자산을 가지고 있다”며 “조금 더 M&A나 자체적인 자생성장을 통해 국내에서 톱으로 만들어놓고 해외에 나가야한다”고 전제했다.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해 “그 동안은 계열사 위주로 해외진출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그룹 주도하에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을 중심으로 모색하겠다.”며 “단, 계열사 중심의 지점형태 진출이 아닌 그룹차원의 현지법인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룹 회장과 행장 분리체제 관련, 불협화음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회장과 계열사 사장들의 할일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길 여부는 없겠지만 매달 한 번씩 경영협의회를 추진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교우는 비은행부분 육성과 관련 “우리투자증권 중심으로 키울 것”이라며 “우리투자증권이 35%지분을 가지고 있고 파이낸셜도 지분이 50%인데 이익이 많이 나면 지분율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교우 동정 ◆

전 축구협회장 **장덕진**(법56) 교우가 9월 18일 목요일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장 교우는 1970년부터 2년간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재임했고, 대한체육회부회장 아시아축구연맹 부회장을 지냈다.

양경자(법60) 교우가 회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난 9월 5일 금요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고, 훌륭한 사회복지인 시상식을 진행했다.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인 **이상진**(법60) 교우는 9월 2일 화요일에 청소년 농구팀 단장으로서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친선생활체육 청소년 농구대회에 참가했다. 이 교우는 현재 모교 교우회 상임이사 와 동국대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케이블TV협회 회장인 **유세준**(행정62) 교우가 9~10월 서울경제신문 명사칼럼 필진으로 활동하게 됐다.

프로축구 울산현대 감독으로 있는 **김정남**(법63) 교우는 울산현대가 9월 2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삼성 하우젠 K-리그 2008'의 제주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 프로축구 감독으로 통산 204승째를 기록해 '최다승 감독'의 자리에 올랐다.

재단법인 주예수 그리스도복음선교회 이사장인 **송대용**(법64) 교우가 지난 7월 12일 재단법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많은 이들이 참석해 주예수그리스도복음선교회가 참된 진리를 전하기를 기원했다.

송인회(행정71) 한국전력기술(KOPEC) 사장은 7월 29일 오전 회사 인근에서 직원들과 함께 에너지절약 홍보 가두 캠페인을 벌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용 부채를 나눠주며 에너지 절약 운동에의 동참을 호소했다.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 운동에 발 벗고 나선 KOPEC은 범국가적으로 시행중인 "10억 리터 석유 모으기 천만인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 회사 또는 가정에서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이고 냉·난방 권장온도 준수, 승용차 홀짝제 및 대중교통 이용 등을 전사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송인회 사장은 승용차 홀짝제 시행과 관련하여 회사 버스를 타고

교우소식



출근을 하는 등 직원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을 격려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송인회 사장은 9월 3일 한국전력 10개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중에서 처음으로 사임했다. 송인회 사장은 3일 "새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4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오랫동안 재신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리더십 약화로 인한 경영 공백을 염려했는데 이제라도 새로운 KOPEC의 리더십이 들어설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송 사장의 임기는 2010년 6월까지로 직원들이 유임청원 서명운동까지 벌였지만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물러났다. 공기업을 전공한 행정학 박사인 송 사장은 전기안전공사 사장 재임시 정부 경영평가에서 매년 1등을 하는 경영능력을 보였으며 당분간 휴식을 취한 뒤 민간부문에서 일을 맡아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 대표 **정세균**(법71) 교우는 9월 25일 목요일에 가진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1시간 55분간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했다. 정 교우는 이날 회동에서 18개 분야를 거론했으며, 최근 금융위기 등을 감안한 듯 회담시간의 3분의 2는 경제 문제에 할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대학원 교우회(회장=홍사순·65경연)는 지난 9월 24일 수요일 오전 7시 교우회관 안암홀에서 제 117회 고경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고경아카데미 강사는 **홍준표**(행정72)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대한민국, 선진강국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홍 교우는 "대한민국은 10년 이내에 선진국으

교우소식



로 가야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그 토대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성과 권력이 공존하는 정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법79) 서울시장이 지난 10월 6일 월요일에 서울 용산구 소재 백범기념관에서 ‘서울을 디자인하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번 특강은 (사)한국 청소년운동연합(총재 이근규·국문79) 주관으로 열렸으며 1부 청소년 대상 행사는 조석남(국문79) 연합 중앙회 홍보이사, 2부 ‘푸른별포럼’은 이종연(법69)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의 진행으로 펼쳐졌다. 한국청소년운동연합은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와 이슈 주도를 위한 연구와 토론의 장으로 ‘푸른별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날 강연회에는 800여명이 참석했다.

법에 대해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의 모임인 법고를 학당은 최근 대법원 사법정책 심의관인 **이준명(법89)** 교우를 초청, 법조인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대전 출생인 이 교우는 현재 판사로서 1993년 모교 법대 재학시절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법, 전주지법 등에서 13년간 판사생활을 지냈다.

◆ 교우 인사 ◆

서현수(행정70) 교우가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승진했다. 서 교우는 중부청 소비세과 주세담당,

국세청 소비세과 주세담당, 북인천서장, 남인천서장, 중부청 조사1국1과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을 역임했다.

전운기(행정72) 교우는 8월 20일 수요일에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신임 총장으로서 취임식을 가졌다. 전 교우는 “최고 수준의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과 대학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산-학-관 네트워크를 활발히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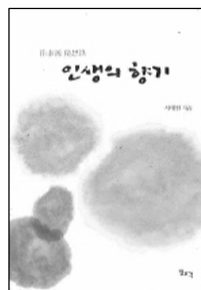
이기원(법74) 교우가 기술보증기금의 신임이사로 선임됐다. 이 교우는 신용보증기금을 거쳐 1990년 기보에 입사했다. 이후 청주지점장, 종로지점장, 서울지점장, 송파기술평가센터 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전 건설교통부 차관인 **이춘희(행정74)** 교우가 전라북도가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 초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임명됐다. 이 교우는 “성공적인 외자 유치를 위해서도 빠른 시간 안에 값싼 산업용지를 마련해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산업단지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수(행정77) 교우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8월 13일 수요일에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임명장을 받았다. 김 교우는 이회창 전 대선후보특보와 이명박 대선후보 비서실 선임부실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인천 계양 갑구 당협위원장, 인천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이사 등을 맡고 있다.

◆ 교우 신간 ◆

● 인생의 향기 / 서태원(정법39) 교우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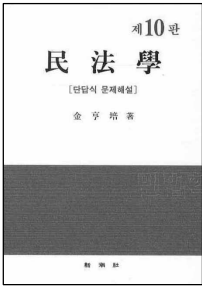


“우선 나는 우리 국민에게 비겁한 국민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비겁한 인간이 되지 않겠다는 확고한 정신이 국민 전체의 몸과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혀 이것이 국민 정신 또는 민족의 ‘얼’로 승화되는 날 우리 국민에게 영광이 비쳐온다고 생각한다.” 서태원 교우가 에세이집 《인생의 향기》를 펴냈다. 제1장 인생의 향기, 제2장 세월은 흘러가고, 제3장 자연 속에서 칠순을 맞은 나의 마음, 제4장 겨레에게 기도하는 마

음으로, 제5장 오~ 필승 대한민국, 제6장 붓을 놓으며 등 총 6부로 나누어 서 교우는 삶의 단상을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다. 팔십 중반을 넘은 나이에도 붓을 놓지 않고 자신의 생을 반추하며 써내려간 글이 독자들에게 잔잔하게 다가온다.

[일조각 / 238면]

● 민법학(제10판) / 김형배(법53) 명예교수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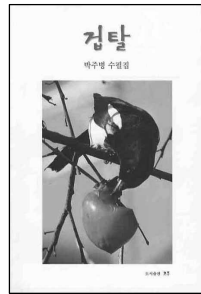
이번 제10판에서는 기존 제9판의 문제들을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독자들의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밀도 있는 출제와 해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부분의 문제들이 재정리되었으며, 새로운 내용 또는 형식으로 바뀌

었다. 전체적으로는 문제의 분량이 줄어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분야에도 미흡하거나 부족한 곳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였다. 우선 2000년도 이전의 오래된 문제와 중복된 지문이나 해설들을 대부분 삭제하였다. 다만, 오래된 문제라도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다른 문제와 조합하여 또는 새로운 형태로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사례문제나 판례문제는 그 해답이나 결론이 유사하더라도 수험생들의 학습효과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삭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각종 국가시험의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문제유형을 다양화하면서 상당부분 8지선다형 문제형식을 취했다. 문제해설에서는 수험생들의 완전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체계적 설명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다른 문제들과의 유기적 연결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해설 말미에 관련문제를 표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조사 / 1150면]

● 겹탈 / 박주병(법56) 교우 저

수필집 《까치밥》, 《매화》 등을 펴낸 박주병 교우가 신작 《겹탈》을 펴냈다. 이 책은 박 교우가 이미 발표했던 글 가운데 고친 글과 신작을 합쳐 엮은 것이다. 이 책에서 박 교우는 “글을 쓴 뒤 한번 붓을 놓으면 한 자도 바꾸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 당나라에 왕발(王勃)이란 시인이 그러했던 모양이어서 사람들이 그를 복고(腹稿)라고 불렀다 한다. 왕발을 복



고라고 한 것은 ‘뱃속에 원고가 들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었다. 나는 복고이기는커녕 수없이 고친다. 발표하기 전에는 물론 발표한 후에도 고친다. 마음에 찰때까지 고치려 하지만 아무리 고쳐도 마음에 차지 않으니 나에게 있어서 글이란 영원한 미완성일 따름이다. 인생이 그러하듯이.”라며 글에 대한 애정을 표하고 있다.

[그루 / 22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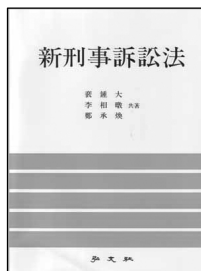
● 폭정의 대해부(김씨왕조의 진상) / 윤상환(법60) 교우 저



「폭정의 대해부(김씨왕조의 진상)」은 「제2의 한국전-가상 시나리오」속편으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에 대해 조망한 책이다. 이 책은 일인독재국인 북한의 진상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어떠한 통치자이며 어떻게 현재의 북한을 건설했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북한의 허구와 진실에 대해 조명해 볼 수 있다.

[메드라인 / 19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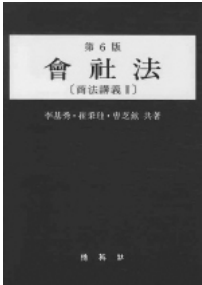
● 신형사소송법 / 배종대(법70) · 이상돈(법80) · 정승환(법83) 교수 공저



형사소송법규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 사례중심의 서술을 통해 이론적 학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형사소송법이 운용되는 실무현실에서 법률적 방어지침을 제공한다. 이번 책에서는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법률, 규칙 등의 개정 내용 이외에도 판례와 다른 문헌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홍문사 / 90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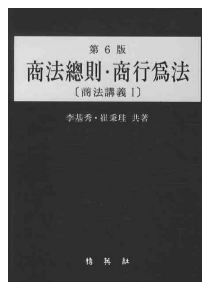
● **회사법(제6판) / 이기수(법65) · 최병규(법81) · 조지현(법86) 교수 공저**



이번 개정에서 주로 수정 · 개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5월 7일 입법 예고된 상법에 대한 개정안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둘째, 독일 · 일본 · EU 등 외국의 회사법 입법 추이를 반영하였다. 셋째, 회사 지배구조론 부분을 개고하였다. 넷째, 집행임원제도, 회사기회유용론, 경영판단원칙, 이사의 책임제한 등 최근 쟁점이 되는 이슈를 반영하였다. 다섯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소개하였다. 여섯째, 종래 파산법 · 화의법 · 회사정리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된 변화 및 그 밖의 법률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일곱째, 그 동안에 선고된 회사법 분야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여덟째, 그 동안 개고된 참고문헌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아홉째, 그 밖에 논리적 오류나 오 · 탈자를 교정하였으며, 제목이 아닌 본문의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였다.

[박영사 / 791면]

● **상법총칙 상행위법(제6판) / 이기수(법65) · 최병규(법81) 교수 공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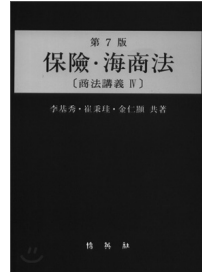
복합운송 등의 개정이 이루어진 2007년 8월 3일 상법 해상편의 개정내용을 소개하였고, 상호계산 부분을 개고하였다.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독립되어 2007년 8월 3일 제정된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그동안의 법인세법, 국세징수법 등 세법의 개정을 반영, 종래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된 변화를 반영하였다. 그동안 입법되고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반영, 그동안에 선고된 총칙, 상행위 분야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그동안 개고된 참고문헌의 변

화를 반영, 그 밖에 논리적 오류나 오탈자를 교정하였으며, 제목이 아닌 본문의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였다.

화를 반영, 그 밖에 논리적 오류나 오탈자를 교정하였으며, 제목이 아닌 본문의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였다.

[박영사 / 68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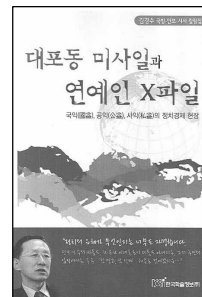
● **보험해상법(제8판) / 이기수(법65) · 최병규(법81) 교수 공저**



보험과 해상을 둘러싼 경제사회 환경변화가 빠른 만큼 법률과 법이론, 법해석학이 시의 적절하게 뒷받침하고자 개정되었다. 2008년 8월 4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개정상법과 2006, 2007년의 중요한 해상법관련 대법원 판결들을 추가하였다. 가또한 해상법의 새로운 쟁점들을 추가하고, 제7개정판 이후 발간된 해상법관련 중요논문을 소개하고 반영하였다.

[박영사 / 829면]

● **대포동 미사일과 연예인X파일 / 김경수(법학68) 교우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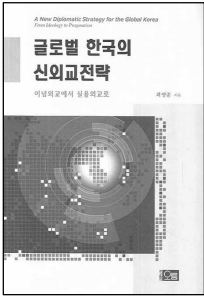


현재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를 맡고 있는 김 교우가 칼럼집을 펴냈다. 김 교우는 국익, 공익, 사익의 정치경제 현상이라는 부제를 달고 정치의 요체가 자명하다고 진단한다. “진보 · 보수의 싸움도, 좌 · 우파 이데올로기 다툼도 아니지요. 그저 국민의 입장에서 두루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겠지요.”라고 말한다. 본서는 정치, 외교, 국방에서부터 사회 일반에 있었던 사건 사고에 관한 김 교우의 해박한 식견과 현상 이면까지 바라보는 단상이 드러나 있다. 정치의 계절이 다가와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눈앞에 다가온 순간, 세계적으로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우리 국민을 생각하며 글을 썼다.

[KSI / 281면]

● **글로벌 한국의 신외교전략 / 최영중(행정78) 교우 저**

국제정치경제 이론과 지역통합, 국제제도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으며 가톨릭대학교 국제



학부 교수인 최영중 교수가 「글로벌 한국의 신외교전략(이념외교에서 실용외교로)」를 펴냈다. 최 교수는 지난 10년을 글로벌 통합의 시대에 세계로 향해야 할 우리의 시야가 한반도로 고착되어 가는 과정이었다고 규정하면서, 노무현 외교의 실패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란 막다른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세계로 인도하였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어서 필자는 '세계 보편 미래 지향'의 실용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글로벌 통합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국가전략 전반은 물론이고, 중요한 외교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국익의 우선과 능력에 맞는 실현 가능한 외교정책의 추진을 일괄적으로 주문하고 있으며, 실용외교가 필요로 하는 최고의 덕목은 바로 '신중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새롭게 도래하는 '실용의 시대'에 과연 실용외교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또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그리고 국제정치경제 분야의 전문가가 글로벌화되고 있는 세계 정치경제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쓴 외교전략 지침서란 점에서 여타 연구와 차별된다. 「글로벌 한국의 신외교전략(이념외교에서 실용외교로)」는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자나 실무자, 급변하는 세계와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해 관심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유용한 안목과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오름 / 304면]

● 미국계약법입문(제2판) / 명순구(법81) 교수 저



미국계약법입문은 미국 계약법의 기초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책이다. 한국에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미국의 계약법을 알고자 한다면 그는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수월하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전의 학습에 의하여 취득한 그

의 법학지식이 미국 계약법의 이해를 위한 촉매가 될 것이다. “「미국계약법입문」을 출간한 것이 4년 전 이맘 때였습니다. 민들레 시리즈의 출발이었습니다. 이번에 제2판을 내면서 우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봅니다. 「미국계약법입문」이 최소한 독자 여러분들께 폐를 끼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초판의 서두에서 미국의 법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없이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국법을 공부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미국법이 세계 곳곳에서 표준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예전보다 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즉 중국계약법)조차도 중요 논점에 있어서 코먼로를 계수하였습니다. 「미국계약법입문」 제2판은 책 말미에 색인을 첨가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초판과 비교하여 내용상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내용이 다소 모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명확한 표현으로 바로잡은 정도의 변화가 몇 군데 있을 뿐입니다.” 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법문사 / 232면]

● 창의력에 생각을 더하는 영재과학 / 성기환 (법82) 교우 번역 · 감수



과학은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 그런 함의가 있고 광의적으로 학(學)과 같은 뜻, 협의적으로는 철학 이외의 학문의 총칭 또는 자연 과학을 일컫는다. 인간의 삶에 있어 과학은 지식과 인간의 태도, 처리능력 등을 키워주며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 풍성한 삶의 질을 높여준다. 최근 논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의력에 생각을 더하는 영재과학」은 논술의 힘을 키우고 영재 과학이란

들을 갖추어 일반인 모두에게 심광을 비춘 지식의 보고로 각광받게 될 것이란 확신을 가지게 할 것이다. 이 책은 세상의 다양한 영역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또는 산술적인 방법으로 놀랍도록 재미 있고 감동적으로 묘사한 과학이야기들로 꾸며져 있다.

[예가 / 391면]

● 생각하는 한국사 1, 2 / 성기환(법82) 교우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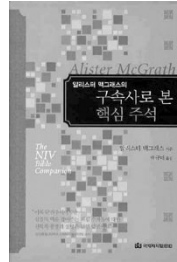
현재 디딤돌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편소설 「디딤 아직 먼길」 등을 펴낸 성기환 교우가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는 지평을 연 「생각하는 한국사 1, 2」를 펴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 현재를 판단하며 미래를 대비, 계획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역사를 중요시한다. 그러나 그런 실용적인 가치로만 역사를 본다면 역사적인 사건이나 결과에 치중하여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나 인간적인 면을 지나쳐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가 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면에 치우쳐서 역사를 배우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 왔으며 현재도 범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성 교우는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현재 우리의 관점과 시각에 의존하여 과거를 보는 것보다 현재의 관점에서 조금 비껴나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 다가서서 과거를 보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책에서 역설하고 있다. 왕조사를 중심으로 엮어 정사를 통해 역사의 중심을 바로 보도록 만든 「생각하는 한국사 1, 2」는 지배층에 의해 기록된 역사를 바로 보고 역사 뒤편에 가려진 피지배층이나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각을 가지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역사에 대해 균형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다. 이 책은 역사적 사건만을 다루지 않고 흥미로운 사건이나 일화를 중간 중간 넣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과목에 대해 흥미가 없었던 학생들도 우리 역사에 흥미를 붙일 수 있다. 또한 학

부모들이나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 우리 역사를 알고 싶은 일반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버틀미디어 / 333, 362면]

● 구속사로 본 핵심주석 / 알리스터 맥그래스 저 · 박규태(법학85) 교우 번역



「구속사로 본 핵심주석」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맥을 잡고, 말씀을 명확히 이해할 뿐 아니라 그 풍성함과 깊이를 탐구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구성된 성경주석이다. 이 책은 성경 각 책의 앞부분에 책의 저자, 책이 기록된 정황,

그리고 책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본문을 단락별로 나누어 핵심 주제들을 다루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찰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면서도 모든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매력 넘치는 필치로 풀어 설명하고 있다.

[디엠로지스틱스 / 493면]

●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 박경신 교수 저



모교 법학과 박경신 교수가 문화콘텐츠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을 펴냈다.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란 생각으로 저술되었다. 이 책에서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권 등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법률분야의 판례들과 함께 그 판례들에서 문제가 되었던 도서, 영화, 사진, 잡지 등을 독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평소 지적재산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과 직접 콘텐츠를 만들면서 실무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었던 사람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고려대학교 출판부 / 277면]

로우 스쿨 단상



김 선 국(법76)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른바 로우 스쿨과 관련한 일련의 조처들이 일정에 따라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예비인가후의 본인가, 법학적 성시험의 실시 및 결과의 발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안의 마련 그리고 로우 스쿨 응시생들의 지원이 마무리되었다. 한 없이 어설피게 보였던 일련의 과정들이 어느 정도 외형을 갖춘 셈이다. 이제 본인가를 받은 로우 스쿨들은 학생 선발을 위한 내부 기준의 정립과 교육 및 교과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식 로우 스쿨제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과거의 논의는 이제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다. 여기서 그러한 논의를 되새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이다. 이제 기왕에 도입된 로우스쿨 시스템을 어떻게 잘 정착시키고 이 제도를 도입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다시 짚어 보고 싶은 몇 가지 점들이 있다.

먼저 향후 변호사시험제도는 로우스쿨의 교육과 교과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자칫 제도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시험과목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인데 법무부안을 보면 로우스쿨 교육이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일정기간 동안의 시험횟수의 제한, 기존의 시험과목의 명칭만을 바꾼 구성, 그리고 이후 결정될 합격률의 비합리적인 제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과거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법학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둘째로 로우스쿨 인가신청기준의 적정성 문제나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여기서 새삼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미국식 로우스쿨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가장 간과하였던 부분 중의 하나는

미국 로우 스쿨 건물의 조그만 룸 안에서 묵묵히 학생들의 모든 것을 뒷바라지 하던 많은 스튜던트의 역할이다. 필자는 우리의 논의과정에서 미국 로우스쿨 직원들이 로우스쿨교육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왜 간과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미국 로우스쿨 교육에 대하여 우리 식의 잣대로 평가했거나 한국의 대학 현실에서 신설되는 로우스쿨에 미국 로우스쿨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수의 직원들을 두는 것이 애초에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라는 등의 짐작을 할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관계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미국의 로우스쿨교육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로우스쿨 스튜던트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고민하였고,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의 단초는 미국식 로우스쿨교육이 직업교육이라는 점을 간과한 데서 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고시 낭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시횟수를 제한한다던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다는 명분하에 일정비율의 장학금을 마련하여야 한다던가(크게 보면 그것이 오히려 불평등일 수 있는 것을)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대학원교육과 관련한 문제 등도 로우스쿨교육이 직업교육이라는 것을 간과한데서 오는 것이다. 어차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제도들의 모든 가치들, 기존의 이해관계자의 요구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 그런 경우에는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로우스쿨 교육의 성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도를 도입한 목적에 최우선의 가치를 둘 때 그나마 시행착오를 가능한 줄이고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허비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번에 좋은 제도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논의의 방향자체가 어긋나서는 그 결과와 기대 사이에 너무 큰 괴리가 생길 것은 자명한 일이다.

“큰 사건은 나쁜 법을 만든다”는 미국의 홈즈 대법관의 말대로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대 변혁이 상충되는 많은 목소리들에 휩쓸려 정체를 한국식(?) 괴물로 탄생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